

# 국무총리 모두말씀

-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7.6(목) -

## [1] 하절기 국민안전 철저 대비

-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창원에서 하천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생겼음
  
-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자인 정부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나가야 함
  - 무슨 말씀이나 하면, 제가 지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공공재산을 우선시 하는,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오랜 사고방식에 빠져 있음
  - 예를 들면 홍수가 날 것 같으면, 도로나 교량을 먼저 걱정함. 그러나 저는 도로나 교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축대 밑에 있는 노후 주택, 거기에 사시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함
  - 왜냐하면 교량이 훼손되면 여러 사람이 불편해 지는 것이지만, 만약에 축대가 무너져서 그 아래에 있는 오래된 주택이 깔린다면 거기에 사시는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
  - 그래서 사유재산이니깐 정부의 관심대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면 안 됨.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됨.
  -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람이 우선인 세상,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 하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 대통령님의 철학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림
  - 국민 입장에서 지나치지 않은가 싶은 정도로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을 점검해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음

- 또한,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됨.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공론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물론 신고리 5·6호기는 올 여름이나 내년 여름 또는 내후년 여름의 전력 수요와는 무관한 것임
- 예정대로 공사를 하더라도 준공이 2021년이기 때문에,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올 여름 전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전력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력의 차질 없는 공급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시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함
- 사전 점검과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더 걱정되는 것은 폭염임. 폭염이건, 혹한이건, 교통사고건,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건 회한하게도 이런 자연의 문제마저도 사회적인 약자를 먼저 공격함. 여러분 잘 아실 것임.
- 폭염도 혹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노약자가 먼저 다친다거나, 교통사고가 나도 가난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시고, 지진이 나도 취약한 주택에 사는 분들이 먼저 피해를 당하는, 억울하지만 그런 것이 인간사회에 있음
- 지금도 전국에 있는 경로당의 상당수에 에어컨이 없음. 물론 이것은 현지 주민이 선택한 일인 경우가 많음
- 2011년으로 기억합니다만 당시 산업부의 사업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이 있었음. 전국 경로당에 선택을 하도록 했음. 에어컨과 텔레비전과 김치냉장고 중에 선택을 하도록 했는데, 많은 경로당은 에어컨을 선택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김치냉장고나 텔레비전을 선택하신 곳도 있음. 그런 경로당들이 지금 에어컨이 없는 상태임.

-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선택하신 결과 아닙니까 라고 따져 봤자 에어컨이 없고 폭염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것은 아님
- 정부가 예산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자체 그리고 염치없는 부탁을 드리자면 향우들께서 내 고향의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다면 마음을 모아서 에어컨 한 대씩 선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봄
- 제가 취임하면서 ‘시민여상(視民如傷)’이라는 중국 성현의 말을 인용한 바가 있음. 백성을 볼 때는 내 상처를 보듯이 하라, 얼마나 아플까 하는 마음으로 보라 하는 뜻임
  - 여러분, 안전 대책 세우면서 이런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함
- 이번에 국회에 제안된 추경안 중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도 포함돼 있음. 추경이 빨리 통과돼서 여름철 안전을 도와줄 인원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일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함

## [2] 군공항 이전 관련 지역과의 소통 강조

- 현재 수원과 대구 그리고 광주 세 군데 군 공항을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세 군데가 심도의 차이가 모두 있음. 그러나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임
  -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지만 주민들, 여론을 주도할 만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이런 분들과 공식·비공식의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함.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한 걸음도 나아가기가 힘든 상황임
  - 그리고 주민들께 설득력 있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그리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3개 지역에 혹시 차등이 있으면 그것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람